재외동포의 창

2014 | 08

특집 | 재외동포재단, 60개국 한글학교 교사 188명 초청 연수

"한글학교는 우리 한글·문화·역사를 사랑합니다"

화제 |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서 '한민족 정체성' 찾기 나서

50개국 416명 참여… 8일간 사회·역사·문화 체험

한민족공감 | 한·중 정상회담 개최

FTA 타결 노력 등 협력 강화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 태평성시도 일부

이상적인 도시 모습을 묘사한 조선 시대의 풍속화

태평성시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태평성시도(太平城市圖)는 성(城)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그린 대형 병풍이다. 8폭 병풍으로 된 이 그림은 제작 시기와 화가를 알 수 없지만 원근법, 건축 표현법, 인물의 묘사법 등이 조선 후기 회화 양식과 공통점을 보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태평성시도는 중국의 작품 양식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 중국의 화풍과 조선의 화풍이 혼재해 있는 양상을 보이지만 중국의 생활 양식과 문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조선 고유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 있다. 2천120여 명의 등장인물은 집에서 생활하거나 행렬이나 무리를 지어 구경하기도 하고 상업을 비롯한 수공업, 건설, 농경, 군사 등 각종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수레와 인파가 가득하고 화려한 상점과 건물이 즐비한 거리 그림은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당장 들리기라도 할 듯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림에서는 상업 공간, 즉 다양한 상점과 그곳에서 일하는 상인과 손님의 모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상품의 품목을 살펴보면 일상적인 생활용품보다 특이한 고가의 기호품을 판매하는 화려한 상점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모여서 동물 묘기, 싸움, 공연 등 별난 구경거리를 보는 경우도 묘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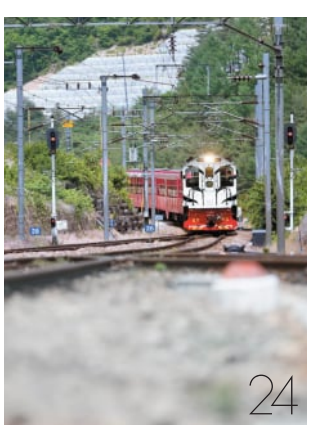
태평성시도의 화가는 조선 후기에 소비, 문화, 유흥의 중심지인 서울을 보면서 상업화에 대한 희구, 첨단 문물에 대한 동경, 의식주를 걱정할 필요 없는 축제 분위기를 담아 태평성대를 염원하는 관념적인 이상공간을 시각화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Cover Story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한글학교는 우리 한글, 우리 역사, 우리 문화를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로 퍼포먼스를 펼쳤다.

재외동포의 창

CONTENTS



02 한국의 얼 태평성시도

04 특집 재외동포재단, 60개국 한글학교 교사 188명 초청 연수

07 동포소식 모스크바~부산 고려인 랠리 팀 바듯한 국내 일정 외

10 기획 재외동포 이민사 8 농업이민으로 시작, 의류업 석권 아르헨티나 한인사

12 화제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서 '한민족 정체성' 찾기 나서

14 글로벌 코리안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신임 회장 최미영

동포문학상 시 부문 대상 캐나다 백복현 씨

한·일 관계 경제로 푸는 재일동포 장영식 회장

16 지구촌 통신원 미국 버지니아 주 동해 병기법 발효

17 동포정책 Q&A 재외동포의 국적 취득과 상실

18 한민족 공감 한·중 정상회담 개최

19 동포의 창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20 동포문학 미국에 사는 진돗개

22 OKF 뉴스 "재외동포 10명 중 8명은 모국과 경제활동" 외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바른 말 고운 말

낱말 맞추기

24 고향 소식 태초의 풍경 찾아 떠나는 협곡열차 V-트레인

26 재단공지 제18회 KBS 해외동포상 추천 안내

2014 08 August

발행인 | 조규형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 · 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사업부 pr@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한산HEP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60개국 한글학교 교사 188명 초청 연수 성황

"한글학교는 우리 한글·문화·역사를 사랑합니다"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들이 한국어 교육 능력을 키우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7박 8일간 모국을 찾았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60개국 한글학교 교사 188명을 대상으로 '2014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를 실시했다. 8일간 인천광역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와 서울, 파주에서 열린 초청 연수는 11일 인천 쉐라톤호텔에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한국 문화의 뿌리와 아이덴티티'란 제목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유 전 청장은 강연에서 "지도 상에서 한국은 중국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보통 나라와 비슷한 크기"라며 "훌륭한 문화유산과 국력이 있고 또 해외에 720만 동포가 있는 강국이니 자부심을 가져 달라"고 참가자에게 당부했다. 이어서 열린 개회식에서 김정수 재외동포재단 기획이사는 "재외동포 차세대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 봉사하는 한글학교 교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연수 기간 다양한 교수법과 학교 운영의 노하우를 배우고 나눠 한글학교가 더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으로 우뚝 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글 사랑' 알리고 한마음으로 '통일 기원'

12일부터 참가자들은 현직 유치원·초·중등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강사진으로부터 NIE(Newspaper in Education, 신문 활용 교육), 교재 제작, 강의 시연 등 현지 한글학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학년별 집중 강의와 한국어 교육 전문성 함양에 필수적인 문법 교육론, 어문 규범, 어휘교육론 등의 한국어 교수법을 함께 배웠다.

단계별 심화 과정에서 참가 교사들은 이명신 연세대 교육대학원 교수의 '유치부 대상 한국어 표현 교육법', 강용철 경희여중 교사의 '생각과 마음을 키우는 NIE', 정경조 부천 계남고 교사의 '한국어 표현 교육 방법과 실제' 특강을 통해 심화된 교육 노하우를 익히기도 했다.

재단은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의 한국사 왜곡 로비에 맞서 재외동포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특강도 마련했다. '독도·동해 표기·한국사·통일을 바르게 가르치는 방법'이란 주제로 박기태 사이버 외교사절단

1. 재외동포재단은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60개국 한글학교 교사 188명을 대상으로 '2014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2.** 교사들은 7월 15일 평화누리공원 내 망배단(望拜壇)에 참배한 후 한 목소리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외쳤다. **3.** 재외동포재단은 동포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독도 · 동해 표기 · 한국사 · 통일을 바르게 가르치는 방법'을 주제로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한글학교 교사 연수 참가자 소감

이혜선 | 노르웨이 한글학교 교사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에 처음 참가했는데 많은 것을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와 교사의 강의가 가장 생동감 있고 기억에 남는다. 특히 교수법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익힐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 노르웨이 한글학교에는 학생 50명에 교사 7명이 봉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지인을 가르치는 성인반이 있다. 대부분 한인 입양인이다. 이들은 모국에 대한 호기심과 원망의 맘을 동시에 갖고 있다. 해외 입양인을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정책을 많이 펼쳐주었으면 좋겠다.

송준민 | 케냐 한글학교 교사

케냐에 12년째 거주했고 교사로는 8년간 봉사를 해왔다. EBS 교육 강사의 '한국사 왜 배우는가' 강의가 흥미로웠다. 50명의 한인 학생을 가르치는데 주말학교라 한국어 수업만 하기도 벅찬 게 현실. 그렇지만, 정체성을 심어주려면 고국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칠 필요가 있기에 도움이 됐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강연도 감동이었다. 돌아가면 따로 시간을 내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겠다고 결심했다.

재정이 부족해서 현지 유치원을 빌려서 수업을 하다 보니 늘 교실이 부족한 형편이다. 초등학교 때는 주말 한글학교를 찾지만, 주말 활동이 많은 중고생은 거의 없는 것도 한계라 고민이 많은데 이번 연수에서 다른 학교의 운영 노하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생겼다.

이혜진 | 태국 방콕한인토요학교 교사

아이가 토요학교 초등부에 입학하게 되면서 교사로 봉사를 시작한 지 4년째다. 이번에 처음으로 연수에 참가했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선배 교사들의 경험을 듣게 된 것이 무엇보다 값진 일이었다. 많은 교육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 신문을 활용한 교육과 치유교육 강의도 기억에 남는다. 독도 주권과 통일 등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강연을 들은 것은 돌아가면 아이들에게 바로 전달할 생각이다.

한글학교는 한국어만 가르쳐서는 안 되며 한국 역사와 사회도 가르쳐야 한다. 동남아에서 성장한 자녀는 모국과의 연결 고리가 크기 때문에 이중 정체성을 가진 인재로 크는 데 한글학교가 일조하고 있다.

반크 단장, 서경덕 한국 홍보 전문가, 최태성 EBS 강사 등이 강연에 나섰다. 참가자들과 함께 퍼포먼스에 참여한 남도우 중남미한글학교협의회 회장은 "720만 동포 사회가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밑바탕에는 한글학교 교사들의 봉사와 희생이 있다"며 "차세대를 육성하는 데 앞장서는 한글학교에 대한 고국의 관심과 지원이 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15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제3 땅굴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임진각으로 이동해 경의선 마지막 역인 도라산역과 평화누리공원을 찾았다. 이들은 평화누리공원에서 자유의 다리를 바라보며 철조망에 '남북 평화 통일', '통일에 동포사회가 기여하자', '대한민국의 발전에 통일이 최고', '이산가족 상봉 기원' 등 통일의 염원을 적은 리본을 달았다.

외국에 살다 보니 잊고 살았던 고국의 분단된 현실을 새삼 깨닫고 안타까워한 교사들은 공원내 망배단(望拜壇)에 참배한 후 한목소리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외치기도 했다. 16일에는 서울로 이동, 경복궁 관람 후 외교부를 방문해 정부의 '재외동포 교육 정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교사들은 이외에도 지역협의회 운영 우수 사례 발표 및 토의, 소고춤 · 택견 · 민화 등 문화예술 매개자 과정, 통일교육원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재단은 전 세계 한글학교 교사의 교육 역량 강화 및 교사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8년부터 매년 교사 초청 연수를 개최하고 있다.

▲ 조규형 이사장은 7월 29일 조선어 교원 연수에 참가한 72명의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조선족학교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파악한 후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은 간담회 후 기념촬영.

"한글 수업은 이렇게" 中 조선어 교원 66명 초청 연수

재외동포재단은 7월 16부터 30일까지 경기 용인의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에서 중국 내 조선어 교원 역량을 키우기 위한 '2014 중국 지역 조선어 교원 초청 연수'를 실시했다. 이 연수에는 66명의 조선어 교원이 참여해 국어교수법 강의, 우수 강의 시연, 교육현장(일선학교) 참관, 수업 구성 및 강의안 작성 등 한국어 교수법을 익혔다.

재단은 올해 연수에는 조선어 교원들이 가족 해체 문제로 고민에 빠진 재중동포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청소년 심리상담 기법을 알려주는 시간도 마련했다.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의 황은숙 박사는 '재중동포 청소년 심리상담'이라는 강연을 통해 부모의 빈자리를 대신해야 할 교사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설명과 사례를 소개했다. 재단은 연수 참가자들이 저마다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분반 수업을 통해 연수 효과를 극대화했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 중에 공주국립박물관과 무령왕릉, 전주 한옥마을, 천안 외암리민속마을 등도 찾아 모국 문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29일 폐회식을 앞두고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의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조선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조선족자치주에 혼자 남은 청소년을 돕기 위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처음 프로그램에 넣은 청소년 심리 상담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지린성(吉林省) 지린시(吉林市) 조선족중학교에 근무하는 김해숙 선생은 "조선어 교원과 한국의 교사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학습법을 비롯해 다양한 노하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헤이룽장성(黑龍江省) 무단장시(牡丹江市) 조선족소학교에서 온 한경애 선생은 "중국어 도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어 도서가 부족하다"며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는 도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조 이사장은 "조선족자치주 인구 감소로 한족 학교화가 이뤄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조선어 교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조선족 학교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 재단에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 CIS 지역 한국어 교사 초청연수

재단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에서 러시아 · CIS 지역 한국어 교사 40명을 초청해 7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연수를 실시했다. 참가자들은 '음식', '교통', '역사와 통일', '전통과 현대' 등 매주 다른 주제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한국어를 익혔다. 이들은 연수기간 한국어 강의를 듣고 한국 역사 · 문화 특강, 독도박물관 · 통일교육원 등을 견학했다.

재단은 올해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맞아 지난 150년간 모국의 말과 역사, 전통을 이어온 고려인들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차세대 민족 교육자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수를 진행했다.

모스크바~부산 종주 고려인 랠리 팀 빠듯한 국내 일정

▲ 7월 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자동차 랠리 출발 행사

한인들의 러시아 이주 경로를 거슬러 러시아~중앙아시아~남북한 등 약 1만5천km의 노선을 내달리고 있는 '한인 러시아 이주 150주년 기념' 자동차 랠리 팀이 국내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할 전망이다.

7월 7일 지프 차량을 이용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출발한 고려인 랠리 팀은 8월 8일 북한으로 들어가 광복절인 15일이나 이튿날인 1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는다.

차량 8~9대에 나눠 탑승한 33명의 랠리 팀은 간단한 환영 행사를 마친 뒤 16일 서울시 주최 기념행사에 참석하며, 17일에는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한다. 안산에서는 5천 명가량의 고려인이 거대한 마을을 이뤄 모여 살고 있는 '땟골'도 방문한다. 18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집전하는 미사에 3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는 것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예방, 정의화 국회의장 만찬 등의 일정이 잡혀 있다. 19일에는 고려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서울-부산 간 랠리가 열린다. 고려인과 랠리 참가 시민들은 자동차를 몰고서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거쳐 부산에 도착한다.

고려인 랠리 팀은 부산 일정을 마지막으로 국내 일정을 마무리한다. 33명 중 20명은 21일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으로 귀국하며, 나머지 10명은 24일 강원 동해항에서 여객선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돌아갈 예정이다.

호주 한·중 동포, 아베 총리 방문 항의 시위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과 중국 동포들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호주 방문에 항의하는 연대 시위를 벌였다.

양국 동포 단체로 구성된 '일본 전쟁범죄 규탄 재호 한중 동포연대' 회원 2000여 명은 7월 8일 수도 캔버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베 총리의 호주 국빈 방문 및 상·하원 합동연설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아베는 이날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호주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려고 캔버라를 찾았다. 시드니에서 버스를 빌려 타고 캔버라까지 온 한·중 동포연대 회원들은 '아베는 세계의 악의 축,' '아베는 일본의 수치,' '고노 담화 수정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으며,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동원 인정과 전쟁범죄 사과 등을 요구했다.

▲ 호주의 한국과 중국 동포들이 아베 총리 방문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송석준 시드니 한인회장은 "아베가 위안부 강제동원 등 일본의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회의사당 방문에 맞춰 항의시위를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아베 총리 방문에 따라 연방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으나, 의사당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한·중 동포연대의 시위는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명 '글렌데일 소녀상' 방문

▲ 일본군 위안부 참상 증언에 나선 이옥선 · 강일출 할머니가 글렌데일 시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다.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증언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옥선(87) · 강일출(86) 할머니가 7월 24일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 시립공원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찾았다.

이 소녀상은 지난해 7월 30일 가주한미포럼(대표 윤석원) 등 한인 단체의 주도로 건립됐으며,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과 마찬가지로 김운성 · 김서경 부부 작가가 제작했다. 특히 이 소녀상은 해외에 세워진 1호 작품이고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상징물이 미국 서부지역 지방정부 공공부지에 들어선 것도 처음이었다.

휠체어를 타고 소녀상을 방문해 헌화하고 묵념한 이옥선 할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이 얼마나 원통해 하겠느냐"면서 "죽어서라도 (일본 측으로부터) 사죄를 받게 해 달라"고 기원했다.

이 할머니는 "사람들은 모두 해방이 되어 좋아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알아줘 죽어도 원이 없다"고 밝혔다. 강일출 할머니는 극우파 일본계 단체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는 세계 연합회'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자기네 땅도 아닌 미국 땅에 세워졌는데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두 할머니는 이어 도서관을 찾은 글렌데일 시 시민에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군 위안부 참상을 증언했다.

한인 변호사 로이 조, 미 연방 하원의원 예비선거 승리

▲ 미국 연방 하원의원 본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된 로이 조 변호사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장을 내민 한인 변호사 로이 조(33)가 예비선거에서 승리했다. 조 변호사는 7월 3일 열린 뉴저지 주 5선거구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90%의 득표율을 기록해 10%에 그친 다이언 세어 후보를 압도적으로 물리쳤다.

조 변호사는 예비선거에 앞서 5선거구를 구성하는 버겐, 패세익, 서섹스, 워런 등 4개 카운티의 모든 민주당 위원회로부터 공식 지지를 확보해 일찌감치 승리가 예상됐다. 조 변호사는 11월 4일 본 선거에서 공화당 중진 현역 의원인 스콧 개럿 후보와 연방 하원의원 배지를 놓고 격돌한다. 스콧 의원은 예비선거에 단독 출마해 투표를 거치지 않고 후보로 확정됐다.

한 살 때 미국으로 건너 온 조 변호사는 고교 재학 시절에는 레슬링과 태권도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브라운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뒤 조지타운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브라운대 졸업 이후에는 뉴저지 주지사 사무실과 뉴욕 · 뉴저지항만청 등 정부 기관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조지타운대 재학 시절에는 연방 상원의원인 바이런 로건의 공보관을 맡으면서 정치의 꿈을 키웠다.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장을 내밀기 전에는 법률회사인 커크랜드&엘리스 뉴욕사무소에서 기업 인수 · 합병(M&A) 및 사모펀드와 관련해 기업들의 자문에 응했다. 조 변호사는 소상공인 지원, 공교육 질 향상, 이민 개혁 등을 주장해 왔으며 친기업적인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어 민주당 내에서도 중도로 분류된다.

서대문구, 해외 입양인 16명에게 명예구민증

▲ 어린 시절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들이 서울 서대문구로부터 명예구민증을 받았다.

어린 시절 해외로 입양된 입양인들이 7월 3일 서울 서대문구로부터 명예구민증을 받았다. 에이바 커크머(12 · 여 · 한국명 최은미) 양 등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16명은 이날 명예구민증을 받음으로써 입양 전 본적지인 서대문구와 지속적인 인연을 맺게 됐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해외 입양인들이 모국을 더 가깝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한국과 서대문구를 기억하고 모국인 한국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명예구민증 수여 행사에서는 12세인 에이바 커크머 양이 대표로 나섰다. 커크머 양은 "위탁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야기해 주셨고 나는 그동안의 사진을 모은 앨범을 전해드리며 덕분에 잘 자랐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면서 "모국을 방문하고 또 명예구민증을 받게 된 것은 모두에게 일어나지 않는, 매우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어머니와 함께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커크머 양은 입양 전 자신을 돌봤던 위탁어머니와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커크머 양은 친가족과 만나지는 못했지만, 입양 기록을 살펴보고 태어난 병원을 둘러봤다. 커크머 양을 비롯한 입양인들은 양부모 등과 함께 입국해 위탁가족 · 친가족과 만나는 기회를 얻었고, DMZ · 한국민속촌을 방문하는 등 한국의 문화를 체험했다.

모국서 K-Pop 배우기에 흠뻑 빠진 고려인 청소년

"케이팝(K-Pop) 배우는 게 아주 신나고 즐거워요.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잔뜩 자랑할 겁니다."

서울시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 열리고 있는 '러시아 · CIS 고려인 한국문화 연수'에 참가한 62명의 고려인과 러시아인 학생은 7월 25일 대학 구내 영상 음악실에서 아이돌 그룹의 유행가에 맞춰 춤과 노래를 흥겹게 배우고 있었다.

러시아 튜멘에서 온 고려인 5세 이모니카(17 · 여) 양은 소감을 묻자 첫마디에 "블락비, G드래곤 너무 사랑해요"라며 머리 위로 손을 올려 하트 모양을 만들고서 "친구들과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어설프게 따라 부르곤 했는데 여기서 전문 강사에게 노래와 춤을 제대로 배우니까 돌아가 자랑할 게 잔뜩 생겼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 한국문화 연수에 참가한 고려인과 러시아인 학생들이 K-Pop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인덕대는 4년 전부터 CIS 지역 한글학교협의회(회장 고영철)와 협약을 맺어 매년 여름 고려인 · 러시아인 초청 문화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CIS 지역 국가와 러시아 모스크바, 시베리아, 극동 지역에서 온 청소년이다. 중학생부터 대학생으로 구성된 이들은 한국어 집중 교육, 문화 탐방 이외에 매주 20시간씩 K-Pop을 배우고 있다.

인덕대는 3개월 연수 기간에 한국 문화체험의 하나로 고궁 · 박물관 탐방, 1박2일 지방체험, 전통놀이 체험, 종이접기 체험, 백범기념관 등 독립운동 유적지 견학 등을 통해 참가자들이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배우고 느끼도록 돕고 있다.

농업이민으로 시작, 의류업 석권

아르헨티나 한인사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의 효시는 이차손 씨로 1941년 이민했다. 그 후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공식 이민자로 기록된 강영례 여사가 1950년 아르헨티나로 이주해 1996년 향년 78세로 세상을 떠났다. 강 여사는 중국 주재 이탈리아 공관 통신관이었던 이탈리아인 남편 로사리오 그라소스 씨와 함께 아르헨티나로 이주했다. 이처럼 공식 이민이 시작된 1965년 이전에 이미 아르헨티나에 일부 한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본격적인 아르헨티나의 한인 이민은 정부가 끈질긴 교섭 끝에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이민 허가를 얻어 1965년 10월 14일 1차로 13가구 78명의 농업 이민 가족이 부에노스아이레스항에 입항하면서 시작됐다. 부산항을 출발해 2개월여만에 도착한 이들은 11월 초에 라마르케 농장에 도착해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축으로 한 한국인의 남미 진출은 1962년 2월 해외이주법 공포 이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정반대편에 위치한 남미의 여러 나라를 해외 진출 대상 지역으로 선택했고, 아르헨티나도 그 중 하나였다.

한국의 아르헨티나 이민정책은 1970년대 들어 해외투자공사, 해외개발공사가 현지 농장을 구입하면서 본격화됐다. 먼저 해외투자공사는 1971년 루한 농장을 매입, 집단적인 농업이민을 시도했다. 새마을 시범농장 사업의 일환으로 야타마우카 농장을 구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농업이민 정책은 현지 사정과 맞지 않아 실패했고, 농업에서 실패를 맛본 아르헨티나 동포는 대부분 의류업으로 업종을 바꿨다. 이 시기에 파라과이 등지에 있던 동포도 일부 이주해오면서 아르헨티나 한인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3만 달러 투자 이주 허용으로 동포 수 급증

1985년 한 · 아르헨티나 간 한국 이민 송출 및 접수 절차에 관한 의정서 체결로 3만 달러 투자 이주가 허용됐다. 과거의 농업이민 대신 투자 및 자영업 이민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했다. 1985년 말 동포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됐는데 신이민자라고도 불리는 이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동포 수가 급증했다. 1989년까지 연평균 1천 가구 이상 입주를 하면서 동포 수는 1980년대 후반 절정에 이르렀다. 당시의 동포 수는 3만5천 명 이상으로 추계됐다.

1. 아르헨티나의 유력 일간지 라 나시온이 7월 15일 주말판에서 한국영화 등 한류를 집중 소개하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2.** 아르헨티나의 한류 팬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심가에서 한국 아이돌 스타의 공연을 요청하는 플래시몹을 연출했다. **3.**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앙헬 그리스 공원에 있는 한 · 아르헨티나 우호의 탑 **4.** 1986년 6월 2일 멕시코 월드컵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경기에서 응원전을 펼치는 현지 동포 응원단. 88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까지 동원한 모습이 이채롭다. **5.**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재 한국문화원이 시정부 행사에서 참가자에게 한글 이름을 써주고 있다.

90년대 후반 한때 한인 운영 의류점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지방의 의류점을 합해 도매상 1천 개, 소매상 1천 개로 추산되기도 했다. 신이민자의 업종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표적 업종은 의류업, 식당업, 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무역업 등이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아직 이민 경력이 짧아 기존의 동포 2만 명을 상대로 가장 개업하기가 쉬운 식당업과 미용업을 주로 선택했다. 한인타운에서 새 업소가 나타나면 대개 신이민자의 업소인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상당수 신이민자는 본국에서 의류업에 종사하다가 의류업이 활성화한 이곳에서 다시 의류업에 손을 대기도 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가 불경기로 접어들면서 재이주의 행렬이 시작됐다.

1998년 시작된 경제위기가 2001년 말 아르헨티나 정부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선언과 은행예금 동결 조치로 절정에 이르면서 2002년 3월 말에는 동포 수가 1만 명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이민자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혜택을 받아보았기 때문에 이곳의 혼란상이나 여건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빠져나갔다. 재이주자의 대부분은 이미 한인 이민사회가 형성된 멕시코 · 브라질 · 미국 · 캐나다 등을 선택했고, 심지어 모국으로 역이주한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한류의 열기와 함께 한인 동포들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009년 한국 관련 TV 프로그램이 전파를 탄 것을 계기로 한류 팬들이 생겨나기 시작해 현재 슈퍼주니어,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 아이돌 그룹이나 특정 연예인을 표방하는 팬클럽이 여럿 활동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현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한 아르헨티나 정부가 한인 동포의 영주권 취득 기준을 완화하면서 한인사회는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다. 마르틴 아리아스 두발 아르헨티나 이민청장은 4월 29일 한인 동포들에게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고용증명서 제출 등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하는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영주권을 신청한 한인 동포 400여 명이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앞으로 영주권이 없는 동포들이 더욱 쉽게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교부에서 집계한 2013년 현재 재아르헨티나 동포 수는 2만2천580명이다.

▲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청소년 초청연수' 가 7월 15일 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7박 8일간 지방과 서울에서 열렸다.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서 '한민족 정체성' 찾기 나서

50개국 416명 참여…
8일간 사회 · 역사 · 문화 체험

전 세계의 재외동포 청소년이 한자리에 모여 재외동포재단이 마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의 사회 · 문화 · 역사를 체험했다.

한민족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글로벌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청소년 초청연수' 가 7월 15일 경기도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7박 8일간 지방과 서울에서 열렸다.

이번 연수에는 전 세계 50개국에서 온 재외동포 중 · 고교생 416명과 205명의 국내 청소년이 참가했다.

15일 오후 개회식에 앞서 '아이스브레이킹 게임', '오리엔테이션', '그룹별 공동체 만들기' 등 사전 프로그램이 열렸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은 어색함도 잠시 자기 소개에 이어 '경계를 넘어선 우정' 이라는 주제의 게임과 그룹별 공동체 만들기에 참여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8일간의 체험에 앞서 몸과 마음의 준비 시간을 보냈다.

이어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조규형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해 서로 응원하고 축하하며 행사의 목적과 의미를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조 이사장은 개회식 환영사에서 "젊고 활기 넘치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마치 모국의 밝은 내일을 기약하는 것 같아 참으로 기쁘고 든든하다"며 "모국 연수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역사, 예술과 전통 등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체험과 경험으로 각자의 거주국과 모국에서 모두 촉망받는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참가자들에게 당부했다.

남 사무총장은 "여러분의 뿌리를 재확인하고 한민족으로서

▲ 참가자들은 7월 21일 파주 임진각 DMZ에서 태극기를 들고 '힘내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통일 기원'을 외치는 '자전거 평화 대행진'을 펼쳤다.

의 자긍심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연수 기간에 한민족의 얼과 정신을 새롭게 느끼며 고국의 아름다운 향기를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참가자들은 16일부터 21일까지 구미, 군산, 대전, 속초, 영천, 울산, 진안, 진주, 춘천 등 9개 지역으로 흩어져 농촌 체험, 홈스테이, 1일 학생 체험, 토크 콘서트, DMZ 자전거 평화 대행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특히 16일 오전 참가자들은 천안 독립기념관을 방문해 독립을 위해 힘쓴 선조의 흔적을 살펴봤다. 침체한 모국 사회에 응원을 보내려고 '우금치 극단'과 함께 만세운동 · 태극기 행진 · 플래시몹 등을 펼치는 '힘내라! 대한민국(Go for it, Korea!)'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17일에는 춘천 소양댐 등 9개 지역에서 태극기 플래시몹을 펼치기도 했다.

9개 지방으로 흩어진 참가자들은 지역 거주 청소년 집에서 홈스테이하며 우정을 나눴고, 농어촌 마을을 방문해 농사일 돕기, 사물놀이 배우기, 전통 염색, 김치 담그기 등을 체험하면서 고국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기도 했다.

이들은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해 또래들과 대화를 나눴고 '글로벌 코리안 톡톡 콘서트' 시간을 통해 서로 교감하며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세계를 가슴에 품는 넉넉함을 배우기도 했다.

21일 오전에는 파주 임진각 DMZ에 전원이 다시 모여 태극기를 들고 '힘내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통일 기원'을 외치는 '자전거 평화 대행진'으로 1주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캐나다에서 참가한 김 데이비드(16) 학생은 "거주국에서는 소수민족이었지만 고국에 오니 모두가 한민족이라서 1주일간 정말 맘이 편했다"며 "참가한 친구 모두 정체성에 대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 더 빨리 친해졌고 돌아가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미니카에서 고국으로 유학 온 이휘정(19) 학생은 "지난번에 청소년 초청연수로 참가한 후 고국 유학을 결심하게 됐다"며 "이번에는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책임감도 키울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어서 큰 행운이었다"고 기뻐했다.

조 이사장은 21일 저녁 서울시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 폐회식에서 "지난 1주일 동안 함께했던 친구들이 여러분 일생에서 매우 큰 힘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 연수가 끝나도 지금의 관계를 이어나가길 바란다"며 "재외동포 청소년들은 각 거주국에서는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신임 회장 최미영

차세대 정체성 확립에 주력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서니베일에 있는 다솜한국학교 교장인 최미영(55 · 여) 씨는 7월 5일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에서 임기 2년의 17대 회장에 당선됐다.

미국 전역 14개 지역협의회 산하에 1천여 개 한글학교와 3만여 명의 학생이 소속된 NAKS의 교사는 대부분 자원봉사자다. 최 회장은 "이들은 내 자녀를 잘 길러보자는 마음에서 교사를 시작해 다른 자녀까지 봉사 대상을 넓혀 간 것"이라며 "긍지와 보람을 교육에서 찾기에 힘든 줄 모른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는 한국학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로 '한인 차세대가 거주국에서 당당히 살아가기'를 꼽았다.

"많은 분이 주말 한국학교는 한국어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교사들은 동포 차세대가 정체성을 확립해 거주국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살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렇기에 한국어 외에도 한국의 역사, 문화, 현재의 이슈 등에 관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17대 회장에 당선된 최미영 다솜한국학교 교장

그는 "한국학교에서 동포 청소년이 고학년이 될수록 줄어드는 것은 한국 배우기와 실생활 사이의 연결 고리를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이 독도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통일 같은 현안에 관해 배우고 토론하는 포럼의 장도 만들어 올바른 세계관을 갖도록 돕는 데 더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 출신으로 이화여대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한 최 회장은 대신중학교 등에서 3년 반가량 교편을 잡은 뒤 1986년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한국학교 교사로 21년째 봉사하는 그는 2006년 NAKS 산하 북가주협의회 회장, 2010년 NAKS 부회장을 역임했고 5년째 북가주협의회 역사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다.

동포문학상 시 부문 대상 캐나다 백복현 씨

"이민의 고달픈 삶에 큰 격려"

"이민 생활 내내 모국어에 대한 갈증을 느껴와 글쓰기에 도전했는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무척 영광입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말로 글을 써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의 '2014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에서 시 부문 대상자로 선정된 백복현(55 · 여) 캐나다 동포는 "부끄럼 없는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 씨는 '노스욕 구두 수선방'이란 제목의 시를 출품해 성인 시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지난 겨울 토론토 한인 타운인 노스욕에 실제로 있는 작은 구두 수선방을 보고 영감이 떠올라 작품을 썼다.

"구두 수선방 주인은 한인으로 고국에서 미술을 전공해 공방을 운영하며 한때 잘나갔지만 지금은 한 평 남짓한 작은

▲ 동포문학상 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캐나다 백복현 씨

공간에서 구두 굽을 갈고 열쇠를 복제해주며 살고 있지요. 하루는 한글 간판의 받침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마치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쩔뚝이며 살아가는 이민자의 모습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시로 표현해봤습니다."

경기도 의왕시가 고향인 백 씨는 이화여대 영문과에서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공립중학교 교사로 15년을 근무했다. IMF 금융위기의 여파로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지자 가족 모두가 캐나다로 이민하기로 결정, 2002년 캐나다 토론토로 건너왔다. 이민 후에는 토론토의 욕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뒤 험버리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해왔다.

4년 전부터는 틈틈이 글을 쓰며 문학상 공모전에 도전했다.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신춘문예 수필 부문 가작(2011), 미주중앙일보 신인 문학상 수필 부문 가작(2012), 미주한국일보 문예공모전 시 부문 가작(2013),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가작(2013) 등의 수상 경력을 쌓았다. 백 씨는 현지 한인신문에 꾸준히 칼럼을 쓰면서 캐나다 한인문인협회에서 초심자를 위한 문예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한·일 관계 경제로 푸는 재일동포 장영식 회장
"한국 제품, 일본서 충분히 통해요"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으로 한·일 관계가 또다시 경색되고 있지만 양국 경제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며 보폭을 넓혀가는 재일 한국인이 있다. 주인공은 20년째 일본에서 유통업을 하는 장영식(47) 에이산(永山) 회장.

6월 25일부터 이틀간 서울과 대구에서 열린 코트라 주최 '2014 프리미엄 상품 구매상담회'에 참가한 그는 "일본 제품이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이는 것처럼 한국 제품도 일본에 널리 유통되면 그만큼 한·일 관계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며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더 많이 알리겠다고 의욕을 내비쳤다.

▲ 유통업으로 연간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재일동포 장영식 회장

"일본 유수의 양판점에 한국 제품 코너가 생겨날 수 있도록 꾸준히 시장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 제품은 품질이 뛰어나서 차별화·현지화만 갖춘다면 1억2천만 인구의 일본 시장에서 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활 속에서 한국산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을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의 영업 방식에는 바로 그런 신념이 깔렸습니다."

1995년에 설립한 에이산은 현재 일본 최대 전자상가인 도쿄(東京)의 아키하바라(秋葉原)를 비롯해 주요 도시와 공항 등 14곳에 유통 매장인 '에이산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2만 가지에 이르는 제품을 판매하는 장 회장은 연간 2천억 원의 매출을 올려 1980년대 이후 건너간 이른바 '뉴커머' 가운데 가장 성공한 한상(韓商)으로 꼽히고 있다. 장 회장은 "올해부터는 매달 1개의 한국산 제품을 선정해 직영 매장과 유수 양판점에 공급하고 있다"며 "에이산은 20년간 유통업을 해오며 쌓아온 신뢰와 마케팅 노하우가 있어 한국 제품의 시장 진입을 도울 수 있다"고 소개했다.

▲ 동해 병기 운동을 주도해온 한인단체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의 피터 김 회장(오른쪽)이 법안 발의자인 데이비드 마스든 주 상원의원(오른쪽 두 번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미국 버지니아 주 동해 병기법 발효
다수 출판사가 동해 표기 시작

강의영 |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미국 버지니아 주 내 모든 공립학교의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함께 적도록 하는 동해 병기법이 7월 1일 발효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는 버지니아 주와 각 카운티 교육청이 이날부터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 교과서만 채택할 수 있다.

워싱턴DC 외교 소식통과 동해 병기 운동을 주도해온 '미주 한인의 목소리(VoKA)' 등에 따르면 7년마다 새로운 교과서를 채택하는 버지니아 주는 2016년 주정부가 교과서를 심의하고 나서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실질적으로 모든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가 함께 들어가는 것은 3년 이후에나 실현되는 셈이다.

VoKA 피터 김 회장은 그러나 지난해 메릴랜드 주 내 각 카운티가 동해 병기 교사지침서 등을 내려 보내고 나서 이미 상당수 출판사가 동해 병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전면 표기 시기는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대형 출판사들이 특정 지역만을 위한 교과서를 따로 만들지 않는 데다 미국 전역의 사회 교과서가 대체로 비슷한 점을 고려하면 버지니아 주 동해 병기법 발효의 효과가 미국 전역에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오늘 법이 발효됐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변화는 예상보다 크고 광범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메릴랜드 주의 몽고메리, 조지프린스 카운티 등이 각급 공립학교에 동해 병기 교사 지침서를 시달하고 나서 주 내 교과서의 60% 이상이 동해를 병기하고 있다는 게 그 사례라는 것이다.

김 회장은 "결국은 출판사들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데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을 통해 동해 병기법안의 처리 과정을 지켜본 교사들도 자연스럽게 '일본해'라는 단어가 나오면 '동해'를 거론할 것이기에 동해 병기법이 언제부터 실제 효력을 갖느냐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운동에 함께 힘을 모았던 한인단체들은 2~3년 이내에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동해가 병기된 교과서가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해 병기법안은 지난 1~2월 우여곡절 끝에 버지니아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3월 말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미주 한인단체들은 올해 11월 중간선거와 2016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미국 국무부 등 연방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동해를 병기하도록 하는 운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미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동해 병기법 제정 성공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의 국적 취득과 상실

요건 갖추면 국적 회복 가능

국적은 출생, 인지, 귀화, 국적 회복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부모가 모두 국적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을 상실한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 국적 동포라면 신청에 따라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 법무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

출생 등의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갖게 된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국적 선택 기간 안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국적 선택 제도를 두고 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국적 판정이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그의 신청에 따라 이를 심사해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이다. 국적 판정 신청자의 혈통 관계, 국외 이주 경위, 외국 국적 취득 등을 심사해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국적 판정을 받으려면 혈통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Q 한국 국적을 가진 동포이다. 아이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마친 상태로 복수국적자이다. 캐나다 국적만 선택할 수 있는가?

A 복수국적자가 캐나다 국적만 선택하려면(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면 된다. 단,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 18세 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5세까지(1980년 이후 출생자는 37세까지)는 복수국적자로서 병역 의무를 지게 된다

Q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제도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나?

A 국적 선택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증빙자료를 첨부해 국적선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한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국적을 먼저 포기한 경우에만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

Q 1942년 한국에서 출생해 중국으로 이주한 사람이다. 한국 내 호적에 이름이 남아 있는데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

A 중국 국적 동포 중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적법하게 입국해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국적 회복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의 관련 서류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국적 회복이 허가되면 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Q 아버지가 동포 1세로 국적을 회복했는데 자녀들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

A 부(父)가 한국 국민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 귀화 대상으로 국내에 입국 후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한 · 중 정상이 특별오찬에 앞서 서울 성북동 가구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다. **2.**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 · 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3.** 한 · 중 정상이 선물을 교환하고 있다.

한 · 중 정상회담개최

FTA 타결 노력 등 협력 강화

박근혜 대통령은 7월 3일 한국을 처음으로 국빈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취임 후 5번째로 공식 회동한 두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를 비롯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타결, 인적 · 문화적 교류의 확대 등을 의제로 단독 및 확대회담을 잇따라 열었다.

회담 결과 두 정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양국 관계의 미래상으로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라는 이른바 '동심원 확장형' 4대 동반자 개념을 제시했다.

특히 두 정상은 동북아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와 관련, 비록 북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핵 개발을 지칭하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4차 핵실험을 포함한 '북핵 불용'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 · 중 FTA 체결을 위한 협상 진전을 긍정 평가하고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원 · 위안화 직거래 체제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2016년까지 양국 간 인적 교류 1천만 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사증 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2015년을 '중국 방문의 해', 2016년을 '한국 방문의 해'로 각각 지정했다. 양국 정부 간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도 체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은 김치 등의 식품을 우선적 협력 분야로 삼기로 했다. 그간 중국은 김치의 특성을 고려한 위생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김치의 중국 수출이 실질적으로 막혀 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측이 수입 위생 기준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공동성명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 전략 대화의 정례화, 양국 외교장관 간 연례적인 교환 방문의 정착, 양국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대화 체제의 설치, 2015년 해양경계 획정 협상의 가동 등도 포함됐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방안 모색

▲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미국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의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어 교수법 강의 등 교사 역량을 강화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이하 NAKS)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미국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의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제32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었다.

'봉사와 전문성'을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마크 피터슨 브리검영대 교수의 시조 지도 관련 강연과 강용철 경희여중 교사의 한국어 수업법 강의 등을 통해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NAKS 지역협의회에 소속된 한국학교 교사 55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교사들은 한국 역사와 문화 교육을 위해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는 방법과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주제 강연을 맡아 한국학교의 발전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총회에서 회원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서니베일에 있는 다솜한국학교 교장인 최미영(55·여) 씨를 임기 2년의 제1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오는 9월 1일 시작된다.

최미영 차기 회장은 "주말 한국학교는 대부분 교회나 학교 건물을 빌려 사용할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지만 자원봉사자인 교사의 열정과 희생 덕분에 유지되고 있다"며 "더 잘 가르치려고 애쓰는 교사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초청연수나 현지 강사 파견 등 지원을 확대해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그는 또 "한국학교의 현지 실정에 맞는 교과서 개발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며 "주말 한국학교는 동포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인 만큼 한국 정부도 지원을 늘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에서 선출된 제17대 회장단. 왼쪽부터 김인숙 부회장, 최미영 회장, 이승민 부회장, 김정자 부회장.

한편, 이번 대회에 참가한 교사 중 22명은 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이사장 노영혜)이 실시한 종이접기 집중 연수를 통해 종이접기 강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들은 한인 2~3세가 우리말과 글, 그리고 문화를 배울 때 종이접기를 활용해 가르치게 된다. 또 '삼각접기', '학접기' 등의 종이접기 용어를 한국어로 표준화하고 이를 세계화하는 데도 앞장선다.

노영혜 이사장은 "종이접기 종주국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종이접기를 통해 문화적 전통과 역사에 자긍심을 갖고 새 한류를 창조하는 데 앞장서는 동시에 꿈·사랑·평화를 이루는 종이접기 강사를 탄생시켜 세계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문화 워크숍, 한국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나의꿈국제재단의 나의 꿈 말하기 대회, 김구재단의 백범일지 독후감 대회 등도 함께 열렸다.

NAKS는 민족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과서 개발, 교사 육성을 목표로 만들어진 단체로 14개 지역협의회에 1천여 개의 한국학교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미국에 사는 진돗개

노지영 | 미국 | 2013 재외동포문학상 초등부문 최우수상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도 미국에서 사는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게 행복인지 불행인지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저의 코리안 아메리칸 생활이 즐겁고 좋습니다. 먼저, 저도 한글학교를 다닙니다. 그런데 나쁜 점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저의 선생님이고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더 나쁜 점이 뭔지 아세요? 언니도 저랑 똑같은 반입니다.

제 한글학교에는 어린 애들이 많고 6학년부터 고등학생은 딱 다섯 명입니다. 6학년 두 명, 8학년 두 명 그리고 10학년 한 명입니다. 저 빼고 다른 6학년 애는 나의 친구, 송이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유치원 다니거나 그 전인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송이를 만났을 때 성격이 나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격이 천사 성격이었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교회도 이제 같이 다닙니다.

엄마는 완전 무섭습니다. 띠가 원숭이인데 제가 그 진실을 몰랐으면 호랑이띠인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만날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돼지처럼 밥 먹고, 꿀벌처럼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원숭이처럼 장난꾸러기예요.

제가 세 살 때 아니면 네 살 때 엄마가 저랑 언니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엄마가 한글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는 나무들을 좋아하니 한글학교 이름을 '느티나무' 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맨날 '니티나무' 라고 썼습니다. 지금은 그 버릇을 고쳤지만 어떤 때에는 글을 빨리 쓰면 '니티나무' 라고 쓸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시애틀에 만날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더운 날도 많습니다. 우리 집은 작은 동네에 있습니다. 평화롭고 좋습니다. 꽃이나 나무도 적당히 있습니다.

여름에는 한국 역사를 배우는데 날씨가 좋으면 교실 밖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한국 역사는 저한테는 좀 쉽지요.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 중에 역사 드라마를 자주 보니깐요.

미국학교는 제가 다니는 한글학교랑 많이 달라요.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도 많고 선생님도 매년 바뀝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한국 애처럼 "너는 꼭 하버드 대학에 가야 해"라는 말을 만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버드' 에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기로 정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쉬웠습니다. 언니가 많이 도와줘 다른 아이들보다 진도도 빨리 나갔죠.

3학년 때 'Challenge Test' 를 보고 'Gifted Program' 으로 들어가서 다른 학교로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공부가 힘들어졌어요. 제가 다니는 미국학교는 크고 좋습니다. 깨끗하고 2층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학교가 많이 좋으면서 또 싫은 것도 있습니다. 싫은 이유는 교육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입니다.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서 혜택을 받기도 하고 또 못 받기도 하는 게 많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 지원서

(Application)에 두 언어를 알고 있다고 하면 좋게 보인대요. 또 미국 영화와 음악을 보고 듣는 것만 아니라 한국 영화와 음악도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두 언어의 예능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볼 수도 있어요. 또 벌써 두 언어를 아니까 더 많은 언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문화입니다. 배가 고플 때 햄버거와 피자, 아니면 미역국과 불고기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들, 한복도 아주 예쁘고 미국 스타일 옷도 제 맘에 들어요. 그리고 핼러윈하고 어린이날을 둘 다 즐겁게 지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두 언어를 배우니 좀 헷갈려요.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콩글리시(Konglish)'로 말합니다. 미국에서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들은 콩글리시를 자주 씁니다. 그리고 두 언어를 배울 때, 두 언어의 문법과 발음이 좀 다르니까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두 군데 다니니깐 숙제도 현지인 아이보다 많습니다. 힝, 저는 다른 현지인 아이들보다 혜택이 없는 거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의 상황을 사람과 동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한국 진돗개 두 마리가 미국으로 와서 새끼를 낳았을 때 갓난 개는 미국 개일까요? 사람마다 다른 대답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엄마는 제게 만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100% 한국 사람이면서 100% 미국 사람이야!"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짜증을 내면서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200%야? 그럼 내가 두 사람으로 보여? 말도 안 돼… 치…"

그런데 이제는 왜 그런지 압니다.

에디슨은 어렸을 때 '1+1 = 1'이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양이와 쥐가 한 마리씩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쥐를 먹으면 고양이 한 마리만 남아 있지요. 또 물 한 컵에 또 한 컵을 부으면 물이 넘치고 여전히 물 한 컵만 있지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One Korean+One American = One Korean-American'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행복인지 불행인지 아직도 모르지만 진돗개 이야기처럼 저의 모국은 두 개입니다! 한국과 미국. 저의 마음은 두 나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영원히 안 잊을 거예요.

누가 저의 정체성을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노지영입니다. I am Jieyoung Noh. 그리고 저는 100%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And I am a 100% Korean-American."

OKF NEWS

"재외동포 10명 중 8명은 모국과 경제활동"

7월 22일 재외동포재단이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526명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낸 '재외동포 국내 경제활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거주 한인 10명 중 8명은 한국과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재외동포재단은 '세계한상대회' 개최와 '한상넷' 운영 등을 통해 고국과 동포사회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사진은 올해 6월 24일에 처음 실시한 '2014 한상 비즈니스 상담회'

활동 유형별(중복응답)로 보면 수출입거래가 53.6%로 가장 많았고 예금거래 42.6%, 국내 직접투자 24.3%, 부동산 투자 20.2%, 증권거래 15.6% 순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들은 모국과 경제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재외동포에 특화된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47.2%)는 점을 들었다. 응답자의 76.9%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활동 정보 취합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해외 한상기업과 국내 기업 간 온라인 네트워크인 '한상넷(www.hansang.net)'을 통해 유용한 경제 팁을 제공해달라는 목소리도 많았다. 응답자의 57.7%가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했다고 답했고, '비즈니스에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고 밝혔다.

동포재단 초청 장학생들 "모국 역사·문화 배워요"

재외동포재단은 7월 2일부터 4일까지 공주대 옥룡캠퍼스와 서울·경기 일대에서 재단 초청 장학생 33개국 111명을 대상으로 2014 상반기 역사문화 체험을 진행했다.

재단은 모국과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재외동포 장학생을 선발, 국내 대학에서 학사 및 석·박사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항공료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현재 국내 대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장학생뿐 아니라 오는 9월 2학기에 학업을 시작하기 위해 어학연수 중인 장학생도 참여했다. 학생들은 재일동포 3세 국악가 민영치 초청 공연과 특강을 시작으로 공주대 박휴버트 교수 특강, 고충상담, K-POP 댄스 및 부채춤 체험, 전통 한과 만들기를 함께했고, 남이섬을 관람했다.

재단은 "모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면서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학생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특히 한국 생활에서 겪는 고충을 듣고 서로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한 지역별 '네트워크의 밤'에 참가자의 호응이 높았다"고 소개했다.

정부 3.0 시대 맞춰 재외동포·단체 정보 제공 확대

8월 1일부터 재외동포와 해외 한인 단체에 관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정보검색 서비스가 제공된다. 재외동포재단은 최근 한민족 네트워크인 '코리안넷(www.korean.net)'을 통해 이전보다 강화된 재외동포·단체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기존에 있던 코리안넷의 '동포 인물·단체' 검색 기능을 강화해 코리안넷 방문자가 전 세계 한인회나 한글학교, 정치·경제·문화 등 12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활동을 벌여온 인물과 단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 재단은 '개방·소통·공유·협력'이라는 '정부 3.0' 정책에 맞춰 사용자 이용 편의를 고려한 쉬운 화면 구성과 기존 데이터의 정제작업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검색 결과가 정확하지 않거나 오래된 정보가 섞여 나왔던 문제점을 검색기능 업그레이드 작업을 통해 개선했다고 재단 측은 설명했다.

코리안넷 방문자는 새로워진 검색 서비스를 통해 170여 개국에 있는 재외동포 3천566명과 4천여 개 한인 단체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바른 말 고운 말

식혜 / 식해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후식으로 식혜나 수정과 같은 음료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식혜는 고들고들하게 지은 흰밥에 엿기름가루를 우려낸 물을 부어 따뜻하게 삭혀 만든 우리의 전통 음료입니다.

요즘은 식혜를 감주라고도 하는데, 감주는 글자 그대로 단술을 뜻합니다. 원래 옛날에는 술에 취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쉽게 취하지 않으면서도 술을 마시는 기분을 낼 수 있는 술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찹쌀과 누룩으로 빚은 감주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모계 조상이나 술을 못 드시던 조상의 제사상에는 술 대신 식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식혜와 비슷하게 발음하는 음식으로 식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해는 생선이 많이 잡히는 지방에서 가자미나 명태 같은 생선에 매콤한 양념을 첨가해서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함경도 가자미식해나 안동 식해 같은 것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식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도 있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몇 일 / 며칠

흔히 정확한 날짜를 알고 싶을 때 "몇 월 몇 일이에요?"라고 묻게 되는데, '월'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일'을 표현하는 경우에 오류가 나타나곤 합니다. 이것을 말이 아닌 글로 표기한다면 '몇 일'이라고 쓸까요 아니면 '며칠'이라고 쓸까요?

흔히들 '몇 월' 처럼 '몇 일'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사실은 '며칠'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시험 때까지 며칠이나 남았지?", "정말 며칠 안 남았구나" 등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며칠'이라는 말은 그달의 몇째 되는 날을 뜻하는 것 외에도 '그녀를 며칠 동안 보지 못했다'란 예문에서처럼 '몇 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며칠'과 '날'의 합성어를 '며칠날'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며칠날'이 아니라 '며칟날'로 쓰고 발음은 [며친날]로 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낱말 맞추기 |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혀요.

▶8월호 문제

1	2	■	3		4	■	5	6
■	7		■	■	8		■	
9		■	10			■	11	
■	12	13		■	■	14		■
■	■		■	■	■		■	■
■	15		■	■	16		17	■
18		■	19			■	20	
■		■		■	■	21		■
22		■	23			■	■	■

▶7월호 정답

가	습	기	■	골	■	기	관	차
랑	■	■	단	무	지	■	■	■
이	심	전	심	■	구	불	구	불
■	청	■	가	위	■	■	들	■
수	전	노	■	세	■	엿	장	수
화	■	■	비	■	지	■	■	박
■	■	기	린	■	옥	수	■	■
욕	■	■	내	부	■	선	■	검
심	술	■	■	산	■	화	랑	도

오른쪽 방향 열쇠

1.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
3. 손을 대지 않고 버려 두어 거칠어진 땅
5. 땅의 이름. 마을, 지방, 산천, 지역 따위의 이름
7. 기이한 행동
8. 평온하고 화목함
9. 아들의 아들. 또는 딸의 아들
10. 큰 기구 속에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이나 수소 따위의 기체를 넣고 그 뜨는 힘을 이용하여 기관의 조종으로 공중을 날아다니도록 만든 항공기
11. 환영, 축하, 격려, 찬성 등의 뜻으로 손뼉을 여러 번 치는 일
12. 여행 중의 견문이나 체험 · 감상 등을 적은 글
14. 그날그날의 비, 구름, 바람, 기온 따위가 나타나는 기상 상태
15. 개인이 사사로이 진 빚.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보다 이자가 비싸다.
16. 자기 이익만을 꾀하는 마음
18. 필기도구의 하나. 흑연과 점토의 혼합물을 구워 만든 가느다란 심을 속에 넣고, 겉은 나무로 둘러싸서 만든다.
19. 끝이 뾰족하며 꼬부라진 물건
20. 종이나 비닐 따위로 물건을 넣을 수 있게 만든 주머니
21. 대학원의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규정된 절차를 밟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학위. 또는 그 학위를 딴 사람
22. 친구 사이의 정
23. 중화요리의 하나.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녹말을 묻혀 튀긴 것에 초, 간장, 설탕, 야채 따위를 넣고 끓인 녹말 물을 부어 만든다.

아래쪽 방향 열쇠

2. 여러 가지가 오밀조밀 어울려 예쁜 모양. 잔재미가 있고 즐거운 모양
4. 땅의 끝과 하늘이 맞닿아 보이는 경계선
6. 총이나 활을 잘 쏘아 이름난 사수
10. 비석에 새긴 글
11. '흥부와 놀부'에서 제비가 흥부에게 물어다 준 씨앗
13. 행랑으로 된 집채. 대문간 곁에 있는 집채로서 문간채라고도 하죠.
14. 익히거나 말리지 않은 고기. 생고기
15.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16. 이곳으로, 이쪽으로. 모두 ○○ 오너라.
17. 고대 소설 '심청전'의 여자 주인공 심청이의 아버지
19. 소갈비를 토막 내 푹 삶아 청장을 친 국

태초의 풍경 찾아 떠나는 협곡열차 V-트레인
느리게 즐기는 산악열차

백두대간 협곡열차는 경북 봉화의 분천역에서 양원역, 승부역, 석포역을 거쳐 강원도 태백의 철암역까지 27.7㎞ 구간을 하루에 세 번 왕복한다. V-트레인으로 불리는 이 열차는 백두대간의 청정한 협곡을 지나며 협곡의 비경과 오지 마을의 평온한 풍경을 보여준다. 열차는 3량의 객차에 158석의 좌석을 갖추고 있다.

객차는 운행 중 주변 경치를 감상하기 좋게 천장을 제외한 모든 곳이 커다란 유리로 돼 있다. 2호차에서는 주류와 간식을 판매하고, 3호차 천장에는 형광 스티커로 별자리를 표시해 열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면 수많은 별이 내부를 환하게 수놓는다.

열차에는 에어컨이나 온풍기가 없다. 대신 여름에는 선풍기가 돌아가고, 겨울에는 목탄 난로를 땐다. 또 객차 지붕에 설치한 태양열 집열판으로 전기를 생산해 조명, 선풍기, 승강문 작동 장치 등에 사용하고 있다. 청정 지역을 지나는 열차답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2013년 5월부터 운행해온 열차는 분천역~석포역 구간은 시속 30㎞, 석포역에서 철암역까지는 시속 60~70㎞로 달린다.

1.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V-트레인 **2.** 분천역 앞마을 풍경 **3.** 분천역에 들어선 스위스의 전통 목조 건물 **4.** 2인용 자전거를 빌려 타고 있는 관광객 **5.**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양원역 대합실 **6.** 양원역으로 이어지는 '체르마트 길' **7.** 바깥 경치를 볼 수 있도록 커다란 창문이 나 있다. **8.** 창밖으로 감동적인 풍경이 쉴 새 없이 지나간다. **9.** 명소를 지날 때마다 승무원이 방송으로 설명을 해 준다.

V-트레인을 이용하면 시속 300㎞에 육박하는 속도로 달리는 KTX에서는 제대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하고 디젤 기관차 바퀴에서 나는 '철커덕 철컥' 소리를 들으며 여행을 즐길 수 있다.

V-트레인의 출발역이자 종착역인 경북 봉화의 분천역은 하루 10여 명이 이용하던 산간 오지의 조그맣고 쓸쓸한 간이역이었지만 V-트레인 운행 이후 1일 평균 방문객이 900여 명으로 늘었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예약을 하지 않으면 기차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있다.

자전거와 렌터카로 즐기는 역 주변 명소

분천역 인근에는 민박집, 식당, 찻집, 장터, 자전거 대여소, 캠프장, 여행안내소가 새로 생겼다. 대여 시간과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자동차 대여 서비스도 있다. 이용료는 10분당 1천 원의 대여료에 1㎞당 190원씩을 더하면 된다. 자동차를 빌려 분천역 인근의 청량산, 청옥산 자연휴양림, 닭실마을, 성류굴, 덕구온천 등을 돌아볼 수 있다.

분천역을 출발한 열차는 15분 만에 양원역에 도착한다. 양원역의 역사는 전국에서 가장 작다. 대합실이라고 해야 10명이 들어서면 꽉 찰 정도이다. 10분간 정차하는 열차에서 내린 관광객은 역사 앞 목로에서 막걸리를 마시거나 번개처럼 말아 가져오는 잔치국수를 먹으며 주변 풍광을 즐긴다.

양원역을 출발한 열차는 수달과 산양이 산다는 골포천, 거북이 바위, 춘양목 군락지, 길이 600m의 승부터널을 지나 승부역에 도착한다. 다시 열차는 아름다운 능선이 펼쳐지는 구간과 자작나무 숲, 백천계곡을 지나고, 석포역을 거치면 속도를 높인다. 열차는 마침내 구문소를 지나 태백 철암역에 1시간여 만에 멈춰 선다.

V-트레인 노선 인근으로는 시원한 계곡, 푸른 산과 숲, 목가적인 마을을 거치는 트레킹 코스가 있다. 승부역에서 양원역까지의 '낙동강 비경길'(5.6㎞), 양원역에서 구암사를 거쳐 무주암까지 걷는 '수채화길'(2.3㎞), 철암역에서 구문소까지의 '고생대길'(4㎞) 등 기차역과 낙동강 상류 구간을 잇는 명품 트레킹 코스 10개가 마련돼 있다.

V-트레인은 분천역-철암역 구간을 운행하지만 첫차는 오전 8시 50분에 영주역부터 이용할 수 있고, 오후 6시 45분에 철암을 출발하는 막차도 영주역까지 운행한다. 이용 요금은 편도 8천400원(영주~철암 구간 1만1천700원)이다.

제18회 KBS 해외동포상 추천 안내

KBS는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거나 인류 사회 복지 증진과 문화 발전에 공헌한 자랑스러운 해외동포를 발굴하여 'KBS 해외동포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열여덟 번째가 되는 'KBS 해외동포상'은 그동안 700만 해외동포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동포애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후손에게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상 부문 및 선발 인원**

- 시상 부문 :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사회봉사, 특별상 (특별상 부문은 독립운동가 후손 중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거나 국익기여, 통일 및 평화 정착에 기여한 사람)
- 선발인원 : 각 부문별 1명(개인 · 단체 구분 없음)

■ **상금 및 특전**

- 상금 : 부문별 3천만 원
- 특전 : 수상자 생애와 업적에 관한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 방송, 수상자 부부 초청 시상식 방송, 산업시설 방문 및 문화체험

■ **후보자 자격**

- 자격 : ① 세계 각국에 진출한 재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함
  ② 거주국 국적취득자, 영주권자 관계없이 모든 한민족을 대상으로 함.
- 후보자 추천 기준
  ① 각 시상 부문별로 훌륭한 업적을 이뤄서 한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선양한 자
  ② 한민족 특유의 근면성과 도전정신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인간 승리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주고 한국인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한 자
  ③ 국제사회 및 한인사회의 공익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했고, 장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 **추전 자격**

- 재외공관장, 국내외 대학 총장 및 대학원장, 국내외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장, 주한 외국공관장, 정부부처 장 · 차관 및 광역시도 단체장, 역대 수상자 및 역대 심사위원, 해외동포상 심사위원회에서 추천자격을 부여한 인사. KBS 집행기관

■ **추천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14년 4월 21일~9월 12일
- 시상자 발표 : 2014년 12월 3일(시상식은 2015년 3월 5일 예정)
- 제출서류 : KBS 홈페이지(www.kbs.co.kr) 참고, 해외동포상사무국(☎ 02-781-2232) 문의

▶ **동포사회 생생한 소식을 기다립니다**

한인사회의 다양한 소식(한인회, 상공회, 한글학교 행사 등)과 이민의 애환이나 널리 알리고픈 미담 등을 보내주시면 게재해서 고국과 전 세계 한인사회에 전하겠습니다. 자랑할 만한 소식, 미담, 성공적인 행사 등 이모저모를 전해주세요.

▶ **원고 보낼 곳** : wakaru@yna.co.kr
shaorong@okf.or.kr
(원고 A4 한 장 이내)

www.hansang.net

HANSANG

제13차
세계한상대회
THE 13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HANSANG

새시대 경제도약의 동반자,
한상네트워크!
Global New Market, **Hansang Network!**

2014. 9. 24(Wed) ~ 26(Fri) | 부산 BEXCO 제2전시장

주최 재외동포 경제단체

주관 재외동포재단, 부산광역시, 매일경제신문 • MBN

※ 대회의 자세한 내용은 한상넷(www.hansang.net)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의 모든것,

KOREAN NET 으로 통합니다.

재외동포 전문포털 코리안넷

www.korean.net

- 재외동포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 한국 역사 한국 문화 콘텐츠
- 주요 재외동포 인물·단체 정보
- 재외동포단체 홈페이지 제작·지원 서비스
- 온라인 초청 지원사업 신청
- 재외동포단체 SNS 서비스
- 비즈니스 교류 및 정보 제공
-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 콘텐츠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

WWW.KOREAN.NET